

01

February 월 Mon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Red like crimson

통독본문 Reading Plan

이사야 Isaiah 1장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주인을 저버린 유다를 꾸짖으십니다. 형식적인 제사도 그치라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가 깊어도, 순종하며 돌아온다면 공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11-20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t

Through Isaiah God reprimanded Judah who had forsaken their master. God asked them to stop perfunctory worship. If Judah chose to obey God and return to God, God promised redemption regardless of how serious their sins.

Isaiah 1:11–20

¹¹ “What to me is the multitude of your sacrifices? says the LORD; I have had enough of burnt offerings of rams and the fat of well-fed beasts; I do not delight in the blood of bulls, or of lambs, or of goats.

¹² “When you come to appear before me, who has required of you this trampling of my courts?

¹³ Bring no more vain offerings; incense is an abomination to me. New moon and Sabbath and the calling of convocations-- I cannot endure iniquity and solemn assembly.

¹⁴ Your new moons and your appointed feasts my soul hates; they have become a burden to me; I am weary of bearing them.

¹⁵ When you spread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even though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listen;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¹⁶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remove the evil of your deed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¹⁷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correct oppression; bring justice to the fatherless, plead the widow's cause.

¹⁸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¹⁹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you shall eat the good of the land;

²⁰ but if you refuse and rebel, you shall be eaten by the sword;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16절)

Why did God refuse to hear the prayers of Israelites? (1:15, 16)

주홍빛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9절)

How do we cleanse our sin that is like red crimson? (1:1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택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법정에서 만난 하나님 God in Court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신 법정(scene)입니다.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증인으로 세우신 “땅과 하늘”도 듣고 있습니다(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님은, 짐승도 먹이 주는 주인을 알아보거늘 이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십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닐 뿐, 거짓된 마음과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기도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것들이 짐으로 여겨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변론해 보라고 하십니다.(18절)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아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 덕분에 이사야서를 읽어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타락한 자녀들로 인해 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셨지만, 사랑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열린 법정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 정결하여서 정의를 찾을 때입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신실한 고을’(Faithful City)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Isaiah is a courtroom-like scene where the people of Judah were called by Go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at were the witnesses when the covenant was first made between God and the people of Judah were also listening. (Isaiah 1:2 “Hear, O heavens! Listen, O earth!”) God accused Judah and Jerusalem of disobeying, citing that even animals recognize their masters who fed them. How could those who walked on the temple courtyard and who had crooked minds and committed wicked deeds survive the judgment at court?

The LORD did not want the worship and prayers of Israel because they were conducted like a meaningless duty and said,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1:18) Israel was speechless. The LORD continued,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they shall be like wool.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 Because of this we are encouraged to continue reading Isaiah. Though our Father was very disappointed because of His depraved children, His love allowed us a second chance. Court was held because of the sins of the people but the grace of God was revealed there. Therefore, it is time to find justice through self-cleansing. We need to stop our wicked deeds and start helping orphans and widows. Our LORD will again call us “Faithful Cit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